

해남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성황

500명 모여 공연·체육경기 진행
가족간 친목·소통 결속력 다져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대표이사 정영희) 해남군가족센터가 주관한 '제15회 해남군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가 지난 6일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열렸다.

해남군 관내 500명의 다문화가족 부모, 자녀, 시부모와 친정 부모들까지 참여해 친목을 다지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지역 각계각층의 발걸음도 잇따랐다. 정영희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대표이사의 개회사 및 명현관 해남군수, 박지원 국회의원,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 등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대회를 주관한 정영희 두성재단 대표이사는 대회를 통해 "해남 다문화가족들과 기쁨 가득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가슴이 벅차고 감회가 새롭다"며 "제15회 해남군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회에는 식전행사로 다문화예술동아리의 플룻 연주로 대회 시작을 열었다.

다문화예술동아리는 해남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수업으로 해남동초, 해남서초, 황산초, 산이서초, 회원초 등 5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 박지원 국회의원, 정영희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해남군가족센터 대표이사, 해남 다문화가족 등이 지난 6일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해남군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매주 1회 전문강사를 통해 학습한 연주 실력을 뽐냈다.

연주에 이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나눔 봉사단 글로벌댄스팀의 공연과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져 다양한 체육경기를 겨뤘다.

이밖에 해남관내 다양한 기관의 기부로 진행된 경품추첨으로 대회가 마무리됐다.

대회에 참석한 다문화 여성 A씨는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두성재단은 매해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를 열어 다문화가족과 소통·화합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두성재단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가족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정영희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대표이사는 "대회를 통해 이웃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기 바란다"며 "세계 모두가 지구촌 가족이 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책들을 지속 발굴 편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성재단은 고 이정일 전 국회의원이 문화, 교육, 의료 여건 등에서 고향

해남이 낙후된 점을 보고 지난 1988년 4월 지역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액의 사재를 투입해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이다.

지난 1989년 12월 지하 1층, 지상 3층 본관 건물과 별관 1동 규모로 전남 최초 종합사회복지관인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고 이어 복지어린이집과 진도자활센터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조진용 기자-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가계 부담 완화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 유지
2개 업소 추가 총 15곳으로 확대
현판 부착·쓰레기봉투 등 지원
"맞춤형 시설 개선사업 등 추진"

강진군이 착한가격업소 2곳을 신규 지정해 총 15곳으로 확대 운영,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으로 가계 부담 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고물가 시대에 원

가절감과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2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를 정부가 지정한 '우리 동네 좋은 가게'를 의미한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업소는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업소들을 대상으

로 가격 및 위생·청결 상태 등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됐다.

2개 업소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강진군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15개 업소(외식업 13개, 이·미용업 2개)로 늘어났다.

강진군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현판을 제작해 부착했고, 추후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등을 지원하며 선정 절차를 거쳐 맞춤형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 착한가게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업소 관련 정보는 착한 가격 업소 누리

집(<http://www.goodprice.go.kr>) 또는 강진군청 누리집(<http://www.gangj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시민에게 착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군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더 많은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해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곡산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보급 무안군, 농가소득 확대 목표

무안군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종자 20톤을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트리티케일은 호밀보다 생산량과 영양 가치가 높고 가축의 기호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진 사료작물이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보다 비료를 적게 소모하여 토양관리와 경영비 절감에 효과적인 사료작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확량도 많다. 수확시기 또한 다른 사료작물에 비해 빨라 수확 이후 다음 작물을 준비하기에 여유가 있어 재배 편의성까지 좋다.

종자 보급 문의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원예과(061-450-4074)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행연 기자

진도군, 국공장 '창덕정' 새단장 모자이크타일 미술작품 배치 등

진도군이 최근 문화친화적 국공장 '창덕정'의 환경조성을 위해 난간 벽면을 이용해 모자이크 타일을 이용한 대형 미술작품인 '주몽의 후예'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 작품명인 '주몽의 후예'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인물로 뛰어난 궁술의 기량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다.

진도는 고려말 여몽연합군에 맞서 최후까지 대항한 삼별초의 전사들이 활을 쏘며 전투한 지역으로 진도 창덕정 국공협회 회원 국공단수의 합이 100단을 넘는다고 한다.

진도 국공장인 창덕정은 지대가 높아 동의호수공원, 편백숲등산로와 새롭게 조성한 연리지팽나무공원이 사진명소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백재현 기자

완도군, '섬의 날' 개최지 최종 선정

해양치유 개최 경험 활용

완도군이 '제6회 섬의 날'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2025년 8월 8일에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개최지로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전남 완도군을 선정했다.

'섬의 날'은 소중한 삶의 터전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숫자 '8'이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8월 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행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획득한 남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인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도군은 행안부 선정 '2024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와 보길도, 생일도 등 6개의 선정될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이 많은 곳이다. 행사의 주 무대가 될 청정 해변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더불어 청해진 유적지, 국내 최초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 등 천혜의 자연환경, 문화 역사 자원, 치유 시설 등도 보유하고 있다.

섬 여행과 함께 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해양치유까지 할 수 있어 새로운 웰니스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완도군은 2회에 걸친 '국제해조류박람회'와 '전남 정원 페스티벌',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수산물축제', '제13회 수산인의 날'과 '김의 날' 등 국제·국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섬의 날' 개최지 선정은 전문가 현장 실사와 발표를 거쳐 진행됐으며, 완도군

의 자연환경과 관광 인지도, 다양한 행사 개최 경험 등이 행사 개최지 선정에 큰 몫을 했다.

해양치유 페스타, 야간 경관 정비, 해양 레저 센터 조성 및 어싱 로드 개설 등 연계 사업을 미리 준비한 지자체의 개최 의지를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6회 섬의 날'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섬의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학술 행사, 해양치유와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이색 드론 쇼, 모래 조각품 전시,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섬 우리 완도에서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 관광 지답게 섬의 가치를 확산하고 섬 관광 활성화 견인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군, 장마철 감염병 주의 당부 식품 매개 감염병 등

해남군은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풍수해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풍수해 감염병은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환경 변화와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유행할 수 있다.

모기를 통해 퍼지는 감염병은 야외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 물릴 위험을 최소화한다.

안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수건, 안약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말고, 눈이 불편할 경우 경우 손으로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해남-전연수 기자